



### 달빛

앞사귀 하나를 쪽배로  
바람따라 휘날리며  
얼마를 배회하고  
얼마를 방황 잃었더니  
맑고 밝은 달빛이여  
나의 꿈인 천당으로 데려가다오

천국의 천인들은  
이별의 아픔을 하소연하지만  
기나긴 세월속에서  
내가 그들을 잊었기에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지만  
나의 기척은 없었다네

풍경은 오래된 기억을 흔들고  
은색을 띤 달빛은  
최초의 소망을 새겼다네  
높은산 먼길 도로로는 길고도 험한데  
집으로 향하는 방향 어떻게 찾을소냐  
천인들의 부탁은  
컷전에서 맴돌고  
사람을 구하는 배는 이미 출항하거니  
'진, 선, 인'의 빛  
나를 이끌어 귀향한다네

## 어린이 파룬궁 '9 일학습반' 서울 텐티박스서 열려



▲ 어린이들이 파룬궁 제 5장 공법을 배우고 있다.

[ 명후이왕 ] 여름방학을 맞아 파룬궁 [法輪功, 파룬따파 (法輪大法) 라고도 함] 수련을 배우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지난 8월 7일부터 9일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텐티박스 (天梯書店) 에서 열렸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마지막 9일째 프로그램을 마치며 “힘들기도 했지만 재미있었다”, “마음이 웬지 더 착해지고 온순해진 것 같다”면서 뿌듯해 했다.

매일 아침 10시에 시작하는 강의에 늦지 않기 위해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난 이도운 (5세) 양은 “힘들지 않았고, 연공 동작도 재미있었다”며 “(앞으로) 파룬따파 수련을 열심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엄마 홍미령 씨는 “5살이고 아직 어려서 강의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저보다 더 집중해서 보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다른 일로는 피곤하다고 투정 부릴 수도 있는데, 매일 아침 파룬따파 배우러 가자고 말하면 벌

떡 일어나곤 했다”고 전했다. 고양시에서 온 최현준 (9세), 최성준 (8세) 형제도 엄마를 따라 ‘9일학습반’에 참석했다. 연공이라는 것을 처음 배웠다는 성준 군은 “가부좌하는 게 힘들었지만, 신기하게 다음에 또 하고 싶고 무조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현준, 성준 군의 엄마 한지영 씨는 “아픈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 우연히 들렀던 한의원 원장님으로부터 파룬궁 수련을 소개받은 뒤 ‘전법륜 (轉法輪)’을 읽으면서 파룬궁이 정말 좋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아이들에게 꼭 파룬궁을 배우게 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어린이를 대상으로 ‘9일학습반’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140여 개 국가에서 수련하는 파룬따파의 수련 인구는 약 1억 명에 달한다. 파룬따파 수련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9일학습반’도 각국에서 열리고 있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뒷면에 계속)

## 연변 박해 소식

### 연길시 위수영 (余秀英) 여사는 불법으로 연길구치소에 납치되다

2021년 7월 20일, 경찰은 가족에게 전화로 2021년 7월 23일 연길시법원에서 법정심사를 한다고 통지했다. 2021년 8월 4일 8시 위수영여사는 연길법원에가 법정심사에 참석한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소식에 의하면 이미 연길구치소에 불법감금 됐다.

위수영여사는 1997년 10월 24일 파룬궁수련을 하면서 ‘진선인(真、善、忍)’ 법리로 자신을 요구해 좋은 사람이되려는 동시에 여러가지 질병이 사라지고 심신의 건강을 얻었다.

2020년 3월 20일, 전염병시기 사람을 구하는 진상카드를 줄때 진상을 모르는 세인에 고발돼 하남파출소 경찰에 의해 납치되고, 집 수색을 당했으며, 현금 127원(진상돈)과 진상표어 15장을 강탈당했다.

위여사는 연길시구치소에 불법으로 7일 감금됐다. 그는 선한 마음으로 경찰에게 진상을 알리고 박해에 배합하지 않았다.

2020년 3월 27일 아침, 그

는 또 한번 경찰이 가한 박해를 거절했고, 따라서 경찰은 강박으로 그를 병원으로 보내 의도적으로 신체검사를 받게했다. 당시 그의 체온이 37.4도였고, 경찰은 더 큰 박해를 노리고 체온을 내리기위해 그의 옷 단추를 3번 풀고 찬바람을 맞게했으나 체온은 내려가지 않았다.

경찰은 위수영에게 “보석치료”서에 서명을 강요했고, 그가 거절하니 경찰은 그를 대신해 서명했다. 그리고 가족에게 570원의 검사비용을 납부하게 한후 그를 석방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그는 2차례 소란을 받았고 매번

문건에 서명하라고 핍박 받아도 모두 거절 했다.

### 연길시 주희옥 또다시 길림성 여자감옥에 감금되다

2017년 4월 7일, 주희옥은 불법 징역형 4년을 선고받고 길림성 여자감옥에 감금됐다. 감옥에 3년 넘게 감금된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기간 집식구들은 사회보험국에 의해 20여만원의 퇴직금을 강탈당했고, 따라서 주희옥은 상소했다. 몇달후인 2021년 3월, 주희옥은 강제 실종됐다.

소식에 따르면 또다시 길림성 여자감옥에 감금됐다.



(1면의 계속) ‘9일학습반’이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총 십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이번 ‘9일학습반’에는 파룬궁을 이미 배웠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참가한 경우도 있었다.

4살부터 부모님을 따라 8년째 수련한 주혜란(12세) 양은 “이곳에 와서 7살이나 어린 동생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연공할 때 힘든 동작도 잘 참을 수 있었다”며 “그렇게 하고 나니 집에서 더 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 양은 파룬궁을 수련하

면서 건강도 지키고, 친구들과 모순이 있어도 ‘전법륜(轉法輪)’의 글귀를 생각하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고칠 수 있었다면서 파룬따파는 정말 좋다고 언급했다.

오랜만에 가부좌를 했다는 박준송(11세) 양은 “신기하게도 ‘9일학습반’에 참가하고 나서 엄마에게 반항했던 제가 부끄럽게 느껴졌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평소보다 소리가 더 풍부해진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파룬따파를 수련하면서 친구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었다는 김시우(11세) 양은 “‘9일학습반’을 하면서 수련에 관심도 더 커졌는데, 특히 잘못된 연공 동작을 바로잡을 수 있어 좋았다”며 웃었다.

‘9일학습반’에서 얻은 게 많았다는 김홍범(11세) 군은 “연공을 하면서 인내심도 강해졌고, 몸도 더 유연해진 데다 성격도 더 차분해졌다”며 “무엇보다 게으른 습관이 사라지고 더 부지런해진 것 같다. 집에 돌아가서 수련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일념 차이가 가져온 기적

### ■ 민국(民國) 기인의 마음에서 선 념이 나오자 운명이 바뀌다

청나라 말 민국 시기에 웨이위(魏巍, 1860-1927)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는 철산(鐵珊), 절강 산음 사람으로, 서예가 뛰어나고 음률에 통달했다. 청(淸) 광서제 11년(1885년)에 향시 합격자가 되었고, 양광(兩廣) 총독 탄중린(譚鍾霖)의 문서관리관을 역임했다.

어린 시절, 웨이위는 무예를 배웠고, 십 대 때는 권술(拳術)로 유명했다. 1882년, 그는 가을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호주에는 관상을 잘 보는 광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광원은 웨이위의 관상을 본 후, 그 얼굴이 문장보다 못하니 뜻밖의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과거급제는 희망이 없다고 했다. 과연 그해 가을 시험 때 웨이위는 과거에 낙방했다. 웨이위는 의기소침해져 정처 없이 방랑하고, 종종 술을 마시며 울적함을 달랬다. 치씨 성의 한 노부인이 웨이위가 눈에 거슬러 계속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험담을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매우 화가 나서 화약을 들고 노부인 집에 가서 집을 불태우려고 했다.

치씨 부인은 강변에 살았고, 주변도 모두 널빤지로 지은 가난한 집이었다. 웨이위는 그것을 보고 탄식했다. '노부인은 비록 입지만, 그 무지한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나? 옥석구분 없이 깡그리 타버리게 할 수 없다.' 이 일념의 차이로 웨이위는 생각을 바꿔 노부인의 집을 불태우지 않았다.

1885년, 웨이위는 다시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 마침 다시 광원을 만났는데, 광원은 놀라며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 얼굴이 이미 바뀌었고, 횡액이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급제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선행을 했습니까?" 웨이위는 자신이 일념으로 가난한 집을 불태우지 않은 일을 광원에게 말했다. 광원이 듣고는 말했다. "이 일념이 많은 생명을 지켜서, 당신 명(命)을 바꿨구려."

그 해, 웨이위는 과연 과거에 급제했다. 중화민국 시기에 북양 정계 요인 차오루린(曹汝霖)은 그와 친분을 쌓았고, 회고록 '일생(一生)'에서 웨이위와 교제한 내용을 기술했다.

### ■ 바른말 한 마디로 난치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산동성 몽음(蒙陰) 현에 사는 장씨 아주머니는 60여 세인데 아픈 허리가 오랫동안 낫지 않았고 허리둘레를 따라 작은 뾰루지가 가득 생겨 몹시 가렵고 아팠다. 이 아주머니는 몸은 좋지 않지만, 마음씨는 매우 착했다. 그녀는 옆집 남자가 자기 아내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며 아내를 때리고 욕하는 것을 자주 보고 들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어느 날, 그녀는 또 옆집 남자가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으

[ 명후이왕 ] 우리는 생활 속에서, 종종 예기치 못한 우연한 일을 경험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고통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호전되고,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겪지만, 신기하게 풀리는 것이다. 그러나 중화전통문화에서 '우연'이라는 표현은 없다.

<서유기>에는 '사람 마음이 한 가지 생각을 하면 세상이 모두 알고, 선악에 보답이 없으면, 천하는 반드시 사심이 있다'라는 계송(偈語)이 있다. 바로 사람이 '일념 사이'에서 나오는 선념(善念)은 신기한 변화를 가져온다.

며 빨리 밭에 나가 일하라고 욕박지르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다. 그녀는 참을 수 없어서, 막 대기를 잡고 허리를 굽힌 채 이웃집으로 갔다. 옆집에 들어서니 그 집 남자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화를 내고 있었다. 장씨 아주머니는 앉아서 옆집 남자를 온화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동생, 화 풀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동생은 부인을 다시는 때리고 욕하지 마세요. 아들딸이 다 컸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게다가 이전에 이 동생 몸이 얼마나 나빴는지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 좀 해봐요. 힘든 밭일은 물론이고 가벼운 집안일도 할 수 없었는데 파룬궁을 연마하고 몸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안팎을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 남편이 끽끔거리며 말했다. "일 년 동안 바쁘게 일해도 이 여자가 파룬궁 수련을 해서 벌금 갚기도 부족한데, 내가 화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장씨 아주머니는 여전히 상냥한 표정으로 말했다. "좀 보세요, 벌금 내는 것은 위에 있는 한가한 공산당원들이 돈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이지, 이 동생이 갖다 바친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공을 연마한 후에는 병이 치료하지 않아도 좋아져서 오히려 치료비를 아껴주지 않았나요?"(뒷면에 계속)

## 내 주변 사람들이 진상을 알고 복 받은 사례

### 지게차 앞바퀴에 발등이 깔렸지만 무사해

지난해 11월 23일, 내 조카의 딸이 결혼했다. 결혼식에서 딸의 시동생을 만났는데 그가 나에게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말했다.

그는 냉동 창고에서 일하는데 사장은 대법제자다. 하루는 사장이 그와 다른 직원에게 대법 진상 탁상달력을 각각 하나씩 주었다. 그는 기쁘게 달력을 받았으며, 매일 시간만 있으면 보고 중요한 일은 달력에 적어놓았다. 그는 어느 날 달리는 지게차 앞바퀴에 발등이 깔렸으나 무사했다. 상처도 없었고 아프지도 않았으며 놀라기만 했다. 그러나 다른 직원은 그 달력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듣기 싫은 말까지 했다. 그도 어느 날 지게차 앞바퀴에 발등이 깔렸는데 근육이 끊어지고 골절됐다. 두 사람이 같은 일을 당했지만, 대법에 대한 다른 태도로 인해 두 가지 다른 결과를 보았다.

이어서 그는 크게 감동하면서 그의 사장은 정말 대단히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사장은 그가



지게차에 발이 깔렸다는 것을 안 후 그에게 관심을 두고 말했다. “당신이 비록 다치지는 않았지만, 매우 놀랐습니다. 당신은 평소에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원망함이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에서 열흘 동안 휴식하세요.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겠습니다.”

### 눈이 있는 큰불

우리 시의 동북쪽에 110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60여 가구의 사람들이 파룬궁을 수련한다. 어느 해 산에 불이 나서 시에서 기관, 공장, 광산 등 여러 직장의 사람을 동원해 산불을 껐다. 그날 북풍이 세차게 불었는

데 산불은 큰바람을 타고 기세 사납게 타올라 곧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을 삼킬 것 같았다.

이 위기의 상황에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을에서 하늘땅을 진동하는 외침이 울려 나왔다.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眞善忍好)”, 외침소리와 함께 신기한 장면이 펼쳐졌다. 조금 전까지도 기세 사나워 막을 수 없었던 불길의 마치 명령이나 들은 것처럼 일순간에 풍향을 180도로 바꾸어 남쪽으로 돌아섰다.

현장에서 불을 끄고 있던 모든 사람이 어리둥절해졌다. 어떻게 분명 조금 전까지도 세차게 불던 북풍이 갑자기 남풍으로 바뀌었을까? 이렇게 큰 힘은 무엇일까? 이때 누군가 알겠다는 듯 마을 가옥의 외벽에 써놓은 ‘파룬따파하오, 찐싼런하오’ 표어를 가리켰다. 사람들은 곧 답안을 찾았다. “파룬따파(法輪大法)가 대법과 인연이 있는 이 작은 마을을 구했다.”

정말 대법이 널리 전해져 하늘이 큰 복을 내렸다!

(3면의 계속) 한 번의 진심 어린 말에 옆집 남자는 대꾸할 말이 없어졌고 화가 많이 풀렸다. 그리고 이 장씨 아주머니의 허리는 자신도 모르게 곧아졌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허리를 만져보고, 허리에 가득했던 응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가족이 모두 놀라고 기뻐하자 그녀는 어쩔 줄 몰라 옆집 남자의 아내에게 물었다. 파룬궁 수련생은 이 말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장 씨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이번에 발에서 일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 아버지 태도가 갑자기 많이 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

니 언니가 저 대신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해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공을 연마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고압적인 상황에서도 공을 연마하는 사람을 위해 용감히 옳은 말을 했으니, 당연히 대법의 은혜를 입으신 것으로 생각해요!”

장 씨 아주머니는 이 말을 듣고 연거푸 감탄했다. “원래 파룬따파(法輪大法)가 이렇게나 신기했구나. 어쩐지 잡히고 맞고 벌받고 노동 교양 형을 선고받으면서도, 굽히지 않고 그렇게 확고하게 수련하더라니!”

장씨 아주머니의 이치에 맞는 말 한마디로 고질병이 완치됐다

는 소식은 한때 현지에서 미담으로 전해져 널리 퍼졌다.

### 편집자의 말

파룬궁(法輪功)으로 잘 알려진 ‘파룬따파(法輪大法)’는 1992년부터 널리 전해져, 중국에서 짧은 몇 년 동안 수련자가 1억 명을 넘었다. 중국공산당의 잔혹한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은 ‘진선인(眞·善·忍)’으로 세상 사람들을 잘 대했다. 이런 기회에 파룬궁 수련생을 만나면 그들은 당신에게 진상 자료를 드릴 것인데, 부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 짧은 순간에 대법의 자비가 당신과 인연을 맺어 생명의 기적이 펼쳐질 것이다. 글/평안